

기울어지는 세대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시간에 있기 때문이다. 일상의 모습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다. 익숙했던 만남들, 자주 했던 외식들, 시간이 나면 찾아갔던 자연, 그리고 내 개인의 생활 패턴들....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리고 말았다. 만남은 뒤로 미루어졌고, 외식은 되도록 삼가며 집에서 밥을 먹는다. 시간이 나면 갔던 산과 바다도 나가는 것이 두렵다. 그렇다고 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할 더 즐거운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다음 주는 조금 나아지려나? 아니면 다음 달은 새로워지려나? 하는 생각에 조그마한 소망을 걸어본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지난 2년 동안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고민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 패턴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발목 잡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한다. 즐겁게 참여하던 예배는 어떻게 되었고, 힘차던 찬양의 시간은 어디에 있는가? 어린이들이 찬양하며 율동을 배우던 우리의 교회 학교들은 어디에 있으며 주중에 모이던 어르신들의 모임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집에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시간을 기다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그런데 실은 그러한 일들이 지난 2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큰일이다. 이 모든 것이 자리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광야에 외침도 없어졌고 가슴에서 메아리치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없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백신을 맞으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살아날까? 마스크를 철저히 하고 외부 출입을 조심하며 집에서 웅크리고 있으면 저절로 회복이 될까? 하지만 전부 아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회복해야 한다.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회복해야 한다. 세상의 회복을 기다리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회복과 발맞추어 우리의 신앙이 회복 될 리 없다.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회복해야 한다. 그 길만이 이러한 시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패턴이 되다가는 진짜 전부 죽는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36-37절)이라고 하신다. 깨어 있어야 한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목 마른자의 마음을 사모해야 한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서 앞드리고 살게 해 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해야 한다. 여기 산다는 것은 육신의 살아남보다는 영적인 믿음의 살아남을 뜻한다. 그렇게 해야 만이 살아날 수 있다. 보트가 침몰하면 거기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이 바로 그때다. 뛰쳐나와야 한다. 그리고 바다를 걸어오라고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더욱 열심히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교회 성도들이 되어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한다.